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0. 12. 22.(화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의경, 사무관 김부병, 문수빈, 김범준 • ☎ (044) 201-4950, 3651, 4952
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신성식, 사무관 오지영 • ☎ (042) 481-1695, 1609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대구 · 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

- 일터-삶터-배움터-놀이터가 연계된 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.22(화)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0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보고하고,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
-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(광역시 5곳)의 도심에 기업,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'판교2밸리'와 같이 산업·주거·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※ 판교 제2테크노밸리

- 국토부, 과기부,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, 주거,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·벤처기업 등을 유치(현재 약 450社 → 향후 1천社 이상으로 확대)
- 국토교통부는 「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」(20.9.23)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광역시 5곳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, 지방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, 도시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심융합특구 후보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.

- 이번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“지역 주도 - 중앙 지원”이라는 원칙 아래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목적, 지역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부지로 제안한 후보지이며,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구 :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

-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(약 98만㎡)는 경북도청 이전부지, 경북대학교, 삼성창조캠퍼스 3곳이며, KTX 동대구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기존 대구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.

* 경북도청 이전부지(약 14만㎡), 경북대(약 75만㎡), 삼성창조캠퍼스(약 9만㎡)

- 경북도청 이전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('18~'22년)인 국·공유지로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인접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산·학·연 기능과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.

② 광주 : 상무지구 일원

-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(약 85만㎡)는 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서편 지역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, 상무시민공원 등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지(약 25만㎡)와 구 상무소각장, 농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(약 60만㎡)로 구성되어 있다.

- 개발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의 절반 정도(약 29만㎡)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며, 부지면적도 충분하여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상무지구 일원은 지역 청년들이 즐겨 찾는 신도심으로 한국 전력공사 및 에너지업계 기업들이 이전해 있는 **나주혁신도시, 전남 대학교**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산업 육성과 같이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광주광역시 **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**시키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발표와 동시에 지정(12.22)

□ 국토교통부는 '21년 2월부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**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예산(1곳당 3억)**을 지원할 계획이며,

*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

○ 부산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**도심융합특구 적정지역 발굴을 위한 협의를** 진행하는 등 '21년에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·발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“**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도시의 도심에 지역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**”면서,

○ “내년에는 **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,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**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가 **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**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,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**창의적 상상**과 **꾸준한 노력**이 필요하다”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부병 사무관 (201-4733), 문수빈 사무관(201-3651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구시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



- 대구 도심지 내에 위치하며, 교육·주거·의료·동대구역 등 생활 및 교통 인프라 우수
- 경북도청 이전부지(약 14만㎡)는 국·공유지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문체부는 특구 추진에 찬성 입장, 대구시는 경북대(약 75만㎡)와 삼성창조캠퍼스(약 9만㎡)를 특구로 묶어 제안

2. 광주시 상무지구 일원



- 행정·교육·주거·금융·의료·지하철·KTX 등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
- 개발가능용지(약 60만㎡)가 충분하여 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가능하고, 개발가능용지 대부분이 공유지(약 29만㎡)와 농지인 사유지(약 29만㎡)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